

#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라

## 정토회 법륜 스님, 2030 청춘멘토링 ‘방향해도 괜찮아’ 세번째 강의... ‘결혼’

아직 싱글인 청춘남녀라면 누구나 결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간다. 매일 같이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밥을 먹는 등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과 같은 결혼을 꿈꾼다. 허나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다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찰 것 같았던 결혼은 예상과 달리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얼룩져 버리기 일쑤다. 꽃피는 봄이 되니 올해도 어김없이 결혼시즌이 돌아왔다.

4월 14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는 ‘결혼’을 주제로 법륜 스님의 2030 청춘멘토링 ‘방향해도 괜찮아’ 세 번째 강의를 열었다. 결혼을 주제로 다루어 인지 이념은 유달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이 많이 참석했다. 결혼이 불행이 아닌 아름다운 꽃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이은정 기자

### # 선택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

Q: 32살의 미혼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다 보니 결혼을 하기 위해 선도 보는데, 자주 남자의 외모를 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 외모보다는 능력이나 다른 조건을 더 많이 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외모가 제 맘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이 싫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의 외모를 따지는 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 남자의 외모를 밝혀 걱정인 것 같은데, 외모를 밝혀도 괜찮습니다. 잘생긴 남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잘생기면 다 좋아합니다. 보통 내가 괜찮다 싶은 남자는 이상하게 이미 짝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32살이라고 하셨죠? 솔직히 32살의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능력도 되고 잘생긴 남자를 찾지만 확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와 비교해 볼까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싸게 구하고 싶어 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간혹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100개 중 2-3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괜찮은 남자도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런 그런 낮은 확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선도 더 많이 보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다 보면 우연히 제 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려면 실현가능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막상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골라 결혼하면 행복하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사실 실속은 그다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인본값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같아서 모두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본인의 마음은 속상할 것이고, 그런 일에 질투를 느끼고 의심이 늘고 화가 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잘생긴 남자와 살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니, 그 후에 따라올 결

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가를 치를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 집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자신이 조금 속이고 살아야 하고,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면 삶은 편한데 상대방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 행복한 지 잘 모르고 삽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도 오래 하고 이것저것 다 맞춰보고 결혼을 해도 시험 볼 때 마치 틀린 답안 골라서 찍는 것처럼 결혼하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자주 상대방에게 기대를 해

서 그렇습니다. 선택에는 선과 악,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이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 # 상대를 고치려 하지말라

Q: 만난 지 2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서른이라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랑 그 친구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평소에는 감정표현을 잘 안하다가 술을 먹으면 어느 정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 친구에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소통이 안 되는 데에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고치려 하면 100% 실패합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그대로 두고 본 다음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60점인데, 이것만 고치면 80점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걸 바꾸려 들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뿐 아니라 본인도 자기의 성격을 바꾸기 힘듭니다. “밖의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듯, 그만큼 자신을 바꾸는 일이 힘든 겁니다. 만약 남자가 감정표현을 잘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십시오. 그런 남자에게 “사랑해”, “좋아해”라는 말을 자주 들으려 하면 안 됩니다.

산이 좋아 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을 자주 다녀도 산이 나보고 좋다는 소리 하던가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소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는 강아지랑 진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건 강아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서 아니라, 말을 안 해도 강아지랑 산이랑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말이 많이 없으면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술을 마시면 조금 말이 트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엔 말이 막혔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직장이나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 사람은 술을 먹고 주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기질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맞춰야 할지 연구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이야기할 일이 생기면, 취하기 전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술에 취해 상대방이 자신의 얘기를 들려하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했던 말을 또 해도 항상 처음 들듯이 들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 어른의 강압적인 행동에 말문이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어른이 뭐라 했기 때문에 대들지 못했지만,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보통 말싸움을 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쪼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려 듭니다. 그러니 남자가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항상 걱려를 해주고 따듯이 대해 줘야 합니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속을 알기가 쉽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자신이 그런 기질을 잘 조율하면 됩니다.

### # 사랑은 장사가 아니다

Q: 저는 33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라고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자니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결혼을 포기하자니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을 해야 할지, 포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20살이 넘으면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조계사 법당에 가서 혼례를 올리세요. 꽃잎을 송이만 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꾸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미루는 것은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꼭 축복해 주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그건 아직 본인이 부모에게 기대고 있고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니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할 때는 경제적인 것, 축복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모두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갈등이 생기 마련이지만, 부모가 반대할 결혼을 한 부부는 보통 부부들보다 더 힘들어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엄마가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구나”라고 합리화 시켜 버립니다. 결혼할 때는 부모를 적으로 보고, 내가 위기에 처하면 부모를 내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할 때에는 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포용해 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이 잘 살면 나중에 지지해 주기 마련입니다. 만약 아직도 부모의 덕을 보고 살기 바란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궁합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합이 안 맞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단 3일이라도 같이 살아본 것은 인생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은 장사가 아닙니다. 자주 주판알을 빙기 마십시오.



# 제 1회 룸비니 세계불교 문화올림픽



## 룸비니 제 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참가 국내종단

|                        |                            |
|------------------------|----------------------------|
| 대한불교임제정종 종정 석묘각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산            |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석승인     | 총 남 불 교 조 계 종 종정 석청암       |
| 선종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 불    | 대 승 불 교 임 제 종 종정 석법장       |
| 대한불교대원조계종 종정 범 아       | 진여법계세존여종 종정 석보각            |
| 대한불교법암조계종 종정 석해안       | 국 제 불 교 조 계 종 종정 석명석       |
| 대한불교달마조계종 총무원장 석효천     | 대한불교법화조계종 총무원장 석식공         |
|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총무원장 석용산     |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석종월         |
| 대한선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석범암      | 세 계 불 교 약 사 종 종정 석해월       |
| 대한불교임제선종 종정 석운암        | 대한불교무상사조계종 총무원장 석동월        |
| 대한 불 교 유 가 종 종정 해 수    | 대한불교일분법왕종 총무원장 원 각         |
| 대한 불 교 조 계 종 총무원장 해 승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
| 대한 불 교 서 천 종 총무원장 흥 산  | 세 계 일 화 조 계 종 총무원장 인 덕     |
| 한 국 불 교 석 가 종 총무원장 원 통 | 한 국 불 교 전 법 조 계 종 총무원장 일 응 |
| 대한불교일분조계종 총무원장 진 각     | 대한 불 교 요 조 계 종 총무원장 인 덕    |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가입된 38개 종단  
대한불교알평승가회 28개 사찰  
(제)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가입된 23개 종단  
참가 각 종단 사찰 1,000여개 사찰

##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성역화 운동

### 증명대법주 만 응, 도 성

|                      |                                   |
|----------------------|-----------------------------------|
| 증명법주 현 불, 청 암, 보 각   | 증명법사 묘 각, 범 아, 원 각, 혜 승, 해 안, 지 우 |
| 조직위원장 학 운, 추진위원장 덕 산 | 집행위원장 법 장, 운영위원장 일 응              |
| 기획위원장 담 화, 사무총장 능 인  | 총괄본부장 현 광, 성지순례단장 진 각             |

### ■ 행사내용

- 의식 : 영산재, 수륙재, 예불 등 각국의 고유불교 의식 경연
- 의상 : 출가자 의복, 재가자 의복 등 각국 불교의상 소개
- 음식 : 각국민족, 찬불가, 독창, 합창경연
- 무용 : 바라무, 극락무, 화관무, 전동무, 고전무
- 영상 : 불교영화 및 다큐
- 무술 : 전통무예, 창, 검, 권법
- 미술 : 탱화, 조각, 불상 (작품제출)
- 경전 : 법화경, 금강경, 사경 및 염송 독송

### ■ 불교문화교류 및 발굴

1. 불교 무차선 세계대회
2. 세계불교연맹대회
3. 불교문화재 박람회
4. 불교국가 미술대전
5. 유네스코 주관 세계불교 문화재 보존 세미나
6. 탄생불 불상조성 기공식
7. 석가모니 진신사리 및 10대 제자 사리 전시

- 주 최 : 네팔 관광부,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 주 관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후 원 : 네팔 관광청, NRN세계불사단체, 네팔불교협회, 불교TV방송, 세계불교승가회, 알평승가회, 세계불교 문화올림픽봉사단(WBOV) <http://cafe.daum.net/wbov> (자원봉사단 접수)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9월 21일 - 10월 11일
- 개막식 : 2011년 9월 21일
- 장 소 : 네팔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일대
- 폐막식 : 2011년 10월 11일

한국대표로 참가할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행사동참 및 성지순례 신청 받습니다.

열린여행사 Tel 055)533-6114 / fax 055)332-7644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1224 전화 02)761-0410 / 팩스 02)785-6870

이번 행사에 동참하실 종단은 신청하시면 다음에 종단명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89개 종단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조직위 집행부에 동참하실 스님께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